

## 땅콩 농가 재배실태 조사·분석

배진우<sup>1\*</sup>, 박진기<sup>1</sup>, 류종수<sup>1</sup>, 한원영<sup>1</sup>, 곽강수<sup>1</sup>, 백인열<sup>1</sup>, 정미혜<sup>2</sup>

<sup>1</sup>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 20,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

<sup>2</sup>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,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자재평가과

### [서론]

땅콩은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지작물이다.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땅콩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재배된 면적은 4,118ha이다. 하지만 땅콩 재배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땅콩 재배농가의 재배양식을 조사·분석하여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.

### [재료 및 방법]

땅콩 재배실태 조사는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경북, 전북, 제주의 전국 땅콩 주산지들을 대상으로 2017~2018년 재배중인 52농가를 조사하였다. 설문내용은 품종, 파종기, 두둑 양식과 같은 재배양식과 함께 작업 단계별 농기계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.

### [결과 및 고찰]

땅콩 농가의 재배양식 조사 결과, 주요 파종시기는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으로 전체의 76.5% 농가가 해당되었다. 많이 재배하는 땅콩 품종으로는 신팔광 75%, 다안 9.6%였으며 그 외 참평, 상안 등이 재배되었다. 종자의 경우 보급종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가가 75%였으며, 자가채종이 23.1%, 혼합하여 사용하는 농가는 1.9%의 비율이었다. 두둑양식은 높은 두둑 48.1%, 평두둑 28.8%, 낮은 두둑 23.1%였으며, 지역별로 사용하는 양식이 다소 상이하였는데 전북과 강원, 충북지역에서는 높은 두둑을, 경기지역에서는 평두둑을, 경북지역에서는 낮은 두둑을 주로 사용하였다. 땅콩 농가 98.1%가 비닐피복 재배하였으며, 피복하지 않는 농가는 제주의 우도 농가로 토양에 돌이 많아 무피복으로 재배하고 있었다. 땅콩 재배의 농기계 사용 여부는 파종의 경우 인력에 의존하였으며, 피복작업은 인력 41.2%, 비닐피복기 58.8% 비율이었다. 경운의 경우 기계이용은 84.6%였으며, 일부 인력에 의한 비율은 15.4%였다. 수확작업은 굴취와 탈곡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굴취작업은 굴취기를 이용한 농가가 69.2%였으며 인력으로 수확한 농가는 30.8%였다. 탈곡작업은 탈곡기 42.3%, 인력 48.1%, 탈곡기와 인력 모두 사용하는 비율이 9.6%였다. 땅콩 재배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농가에서 표준재배법을 준수하고 있었지만, 파종양식은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여 재배기술의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었다. 또한, 기계화 작업의 경우에도 파종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었다.

### 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1248601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\*주저자: Tel. 055-350-1266, E-mail. bjw0409@korea.kr